

어촌의 무형 재산인 역사와 민속



주강현
문학박사 · 한국민속연구소장

바다의 생선이나 패류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무형의 역사나 민속을 곁들여 판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승할 것이다. 가령,
울릉도에서 오징어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역사나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역 사와 민속조차도 재산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드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볼까 한다. 얼마 전에 일본 아마구찌현(山口縣)의 바닷가를 답사하고 왔다. 시모노세키가 있는 혼슈 서단의 현이다. 1개 현에 박물관, 수족관, 자료관 등의 이름이 붙은 시설만 67개였다. 또한 그들 시설 내에는 대개 어구전시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어민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마구찌의 관문인 시모노세키에 가면 바닷가의 관공해협에 그 옛날 쓰던 대포들이 고스란히 진열되어 관광객을 잡아끈다. 거기서 조금 걸어가면 그 유명한 수산시장이 나오는데 먹거리 시장으로 불만하다. 친수공간이 있고 수족관이 있어 시모노세키항은 국제항이자 문화항 구이기도 하다.

바다의 생선이나 패류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무형의 역사나 민속을 곁들여 판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승할 것이다. 가령, 울릉도에서 오징어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역사나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주도민들이 수산물만 팔아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 수입의 상당부분은 바로 관광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 관광조차도 문화관광으로 변한지 오래이다.

지루한 답변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왜 어촌 및 어민의 역사와 민속이 무형의 재산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 구체적인 사례들은 현재 각 지자체 단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들이기도 하기에 상호 비교하면서 사태를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1. 태안반도 전통어법 돌살

충남 태안군에서는 돌살(독살)이란 전통어법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태안반도는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십리포 식으로 명칭을 부여받은 해수욕장이 연이어있어 발길을 끈다. 한여름 바강스장소인 그 해수욕장들이 대부분이 돌살터다. 돌살은 돌을 쌓아 잡아들였던 전형적인 전통어법.

해수욕장이라고는 하나 어민들 처지에서야 생업을 이어가던 백사장일 뿐이고, 완만한 경사를 지닌 백사장은 고기가 몰려드는 천혜의 돌살터로 유리하다. 특히나 태안반도 의항과 몽산포 굴업돌살은 너무도 선명하고 장중하여 서해안의 손꼽히는 해양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남쪽으로는 두여, 밧개, 마검포, 바람아래 등에 이르기까지 돌살이 즐비하다.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일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면서 여름바다를 즐겼건만 전통어법이 퍼져있는 것은 몰랐다. 태안반도의 돌살군은 외해의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 말미암은 모래사장과 검은 돌살이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바다와 하늘 사이에 자리잡았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고기떼도 함께 들어왔다가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돌살에 갇힌다. 물이 나간다고 해도 늘 일정한 양의 물이 돌담 안에 고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연못을 이루게 된다. 거기서 사람들은 은 조기·갈치·숭어·멸치 등 종을 가리지 않고 많이

잡았다.

돌살은 전 세계의 지혜로운 바닷가 선조들이 창조해낸 자연적인 살림살이법이었다.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이다. 그러나 돌살은 20세기의 '씩쓸이 어법'과 더불어 가장 먼저 퇴장한 고기잡이법이기도 하다. 연근해 어족이 사라지고 갯벌이나 모래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바다를 '바다밭'이라고 부르거니와, 바다밭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개발의 발톱이 바다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 경제논리에 밀려 돌살어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공을 적게 들고 고기를 잡던 돌살의 놀라운 생태관은 사라지고, 비싼 댓가를 치르는 어법만이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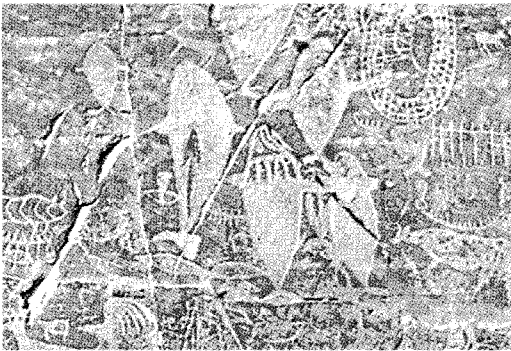
태안군은 이들 돌살을 복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적으로 돌살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일부 보수에도 나섰다. 돌살을 통한 생태체험 어장사업이 시범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돌살을 이용한 최초의 생태관광지원화가 될 전망이다.

사례 2. 울산 장생포와 반구대의 고래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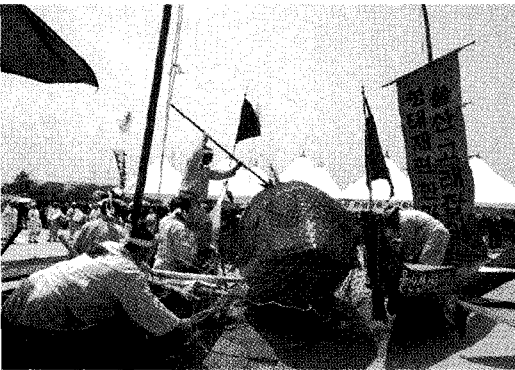
울산시는 요즘 고래문제로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산 반구대암각화와 장생포 고래잡이는 수천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내재적 연속성이 너무도 극명하다. 고래문화의 장기지속성이 적어도 울산 땅에서 만큼은 지금껏 입증된다.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 상류에 깎아지른 절벽이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암각화가 있어 엇그제까지 살다가 방금 전에 떠난 듯한 선사인의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반구대에 각인된 고래는 귀신고래, 긴수염 고래, 혹등고래 따위임이 학계의 정설이다. 배의 받고랑무늬가 돋보이는 참고래, 배타고 고래를 포획하는 선사인의 어

로활동, 아기를 엮고 가는 어미고래, 고래고기를 분육한 듯한 분배그림도 엮보인다. 반구대암각화는 우리의 선조들에게 고래가 주식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반구대 암각화 탁본



울산 고래축제에서 고래잡이 재현 시범

1985년 '느닷없이' 포경이 금지되면서 장생포도 몰락의 길을 걷는다. '느닷없이' 라고는 하였지만 국제적 반포경운동이 불러온 예정된 결과였다.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공급원이 사라지자 고래잡도 거의 명맥을 잃게 되었고 고래도 '금값'이 되었다. 포경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파장이 장생포에도 강력하게 휘몰아쳤다. 포경선은 항구에 묶였고 포선은 녹슬어갔다. 장생포에서 포경선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사실 포경을 반대하던 구미선진국은 본디 전세계적 규모에서 포경을 주도해온 나라이다. 한반도의 고래씨를 말린

나라들도 이들도이다. 어느 동물의 포살보다도 잔혹한 고래포살을 보면서 '동물애호가들이 전선에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제까지 세계를 주름잡던 포경국들이 반포경에 나선 것은 사실 역사의 아니러니다.

고래보호와 포경을 둘러싼 문제는 대단히 복잡미묘하며 국제적인 사안이다. 내년 5월30일~6월24일까지 울산시에서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를 계기로 '숙음포경'을 재개하자는 노력이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찍부터 반구대유적과 장생포를 중심으로 한 고래문화의 재현, 고래축제 등을 이끌어온 울산시는 고래박물관과 고래연구센터도 만들어 명실공히 '고래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 장생포가 버티고 있는 중이다.

사례 3. 기장 멸치와 멸치축제

부산 기장에서는 언제나 봄철 기장멸치축제가 열리고 있어 사람을 잡아끈다. 멸치대접이 융숭하기 그지없어 '보조'가 아니라 '주연'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멸치 자체가 어엿한 생선의 반열에 올라 있다. 그것도 단돈 5,000원에 맛깔스런 회무침이 나오는데다가 해장용으로든 그만이어서 전국의 술꾼들이 부러워할만하다. 미나리·우거지·방앗잎 등이 어울린 얼큰한 맛이 혀를 자극한다.

멸치찌개, 멸치회, 멸치구이, 멸치젓 등등의 다양한 멸치음식문화가 기장에서 형성되고 있으니 가히 멸치에 관한한 메카가 아닐까.

그물에 수없이 달라붙은 멸치를 그 자리에서 털 수 없으니 포구로 돌아와 멸치털이를 한다. 그래서 봄멸치가 대거 몰려들 때면 아예 '기장멸치축제'가 열리며, 곳곳에서 떨어지는 멸치를 줌의 맛이 그만이다.

'기장현읍지'에 아예 구포(九浦)라고 명명하였다. 무



기장 대변 멸치 축제

지포(기장을 신암과 대변 사이), 공수포(공수마을), 을포(일광면 이천리), 동백포(동백리), 가을포(송정일대), 독이포(장안읍 문동리), 월내포(월내리)가 그것이다. 기장바다를 둘러보니 실제로 만(灣)의 진퇴가 심하다. 내만이 형성되어 바람 피하기 적절한 곳에는 어김없이 마을이 들어섰다. 대변항에는 기장 유일의 섬인 죽도(竹島)가 있어 섬 자체가 바람막이 방파제 역할도 한다.

기장의 멸치축제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으며 역사와 민속이 만나는 소중한 해양축제가 아닐수 없다. 대변항의 발전을 논함에서 있어서 이제 멸치축제를 빼놓고는 논의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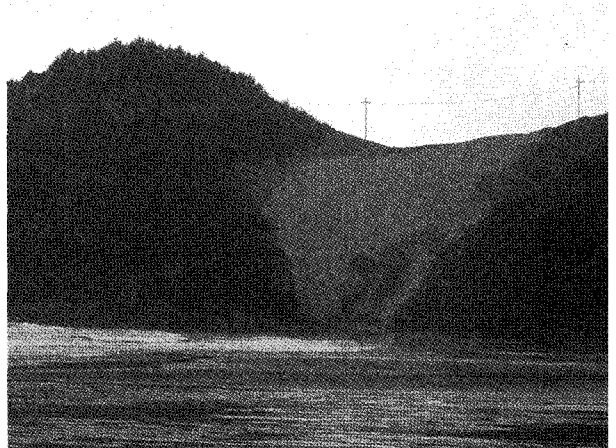
사례 4. 우이도의 모래산

전남 신안군의 외딴 섬인 우이도는 모래산이 있어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잡아끌고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바다가 매력적인 곳이라 모래사장의 추억만 가지고도 달려간 노고에 값을 한다. 그런데 그들의 추억만들기가 강해질수록 모래의 존재 가치는 절대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강가의 모래를 파내다가 바다모래에 손을 댈지 이미 오래. 금모래 은모래가 수놓던 강

변의 모래가 사라지자 바다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바다모래는 무한정하리라 착각하던 사람들에게 어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바다모래는 사실 알 낳는 모든 물고기의 집이다. 바다모래를 파내 아파트를 지어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순간, 물고기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되곤 한다. 대단한 역설이다.

신안군 우이도에는 천연의 모래언덕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많은 이들이 찾아들고 있다. 뱃길로 들어가자면 여객선이 방파제로 접어들자 중앙의 거대한 사구가 한 눈에 들어온다. 모래언덕이라기보다는 '모래산'이다. 각종 연구보고서에 풍성사구(風成砂丘)라 하였으니, 바람이 빚은 사구란 뜻이었다.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관광객들이 그나마 찾아드는 것은 전적으로 사구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영팬티만 걸친 채 사구를 걸어 올라간다. 한여름에는 사구 정상이 사람들로 빼곡하다. 눈썰매 타듯이 사구를 내려온다. 일찍이 이곳에서 오랜 귀양살이를 하다가 우이도 바깥바다인 흑산도로 쫓겨가서 자산어보란 희대의 수산서를 남기고 떠난 약전. 당신께서도 우이도의 사구를 일상적으로 거닐었음이 분명하다.



우이도 모래산

사례 5. 울릉도 저동항의 오징어

오징어 원조를 만나려면 역시나 울릉도 저동항으로 가야한다. 그야말로 진풍경이다. 훗대바위에 여명이 동터오자 어판장은 시장판으로 바뀐다. 수협직원들이 종을 치며 입찰을 붙인다. 배에서 연신 내려진 박스가 칸칸이 쌓여져서 입찰 판에 나선다. 중개인이 적어낸 팻말에서 최상가격을 찍어낸다. 입찰이 끝나면 박스를 뒤집어 오징어를 바닥에 쏟아낸다. 날카로운 비수를 들고 서성이던 오징어 아지매들이 달려들어 할복을 시작한다. 누르고 흰 오징어창자가 바닥을 그득 채울 때 쯤이면 이내 대꼬챙이를 들고와 스무마리씩 꿰어서 한축을 만든다. 물에 씻어서 리어커 등으로 덕장으로 운반하면 아지매들의 어판장 작업은 여기서 종료다.

대충 말리기만하면 되는 줄 알지만, 한 마리의 건오징어가 탄생하려면 복잡다단한 공정과 비용을 치른다. 할복, 대나무 꿰기, 물로 씻기, 덕장운반과 널기, 젓혀진 귀를 뒤집기, 뭉친 오징어다리를 떼어서 보기 좋게 만들기, 탕이라 부르는 대나무로 심을 박아 땀씨잡기, 스무 마리씩 축여기, 냉장실 입고, 배에 싣고 내리기,



저동항 새벽 어판장

차량에 싣고 내리기 등등, 거칠 공정은 모두 거쳐야만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간다. 공정마다 비용이 들은 당연한 일. 이렇게 하여 오징어가 가격이 결정된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초저녁 무렵이면 강렬한 불빛으로 바다의 축제를 여는 진풍경은 동해안 어디서나 일상적이지만 울릉도는 원산지답게 오징어를 빼놓으면 삶 자체가 아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징어 흉년이면 섬 전체가 보릿고개고, 오징어 풍년이면 섬 전체가 흥청거린다. 저동항 바로 앞의 죽도에서 독도방향으로 하나의 도시가 형성된 듯싶다.

울릉도민들은 역경의 삶을 헤쳐 나가면서 우리가 즐겨 먹는 오징어살 보다는 사실 부산물을 더 품격있는 요리로 개발해냈다. 흰창자로 끓인 내장탕은 시원하기가 그만이다. 소금에 절여서 배추쓰레기와 함께 양념하여 끓여내는 노란창자찌개는 8월의 울릉도오징어축제 때 최고 인기다. 여기에 감자와 옥수수밥을 올리면 전형적인 울릉도식 접대방식이다. 10월이 넘어 찬바람이 돌면 기름진 노란창자를 된장에 졸여서 찜장도 만든다. 오징어내장과 떡몰로 만든 순대는 서울식과 전혀 다르다. 이렇듯 오징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징어 먹물요리를 가지고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키워낸 이태리사람들의 역량과 견줄어 손색이 없는데 왜 우리는 울릉도사람들의 이 뛰어난 요리를 세계인의 식탁으로 이끌어내지 못할까!

사례 6. 울진 후포항과 왕돌초

동해는 깊다. 불과 100여미터만 나가도 절해의 절벽이다. 그래서 동해 심해저는 서남해에 비하면 어족자원의 종수가 다양하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우뚝 솟은 울릉도나 독도의 의미가 각별하다. 더 동쪽으로 나가면 갑자기 너른 대륙붕과도 같은 대화퇴가 나타나 고기들

이 바글거린다. 일반에게 덜 알려진 비경이 또 하나 있으니 울진 후포에서 불과 23Km 떨어진 왕돌초(王疇礁)가 그것이다.

'숨어있는 진주' 아니면 비로소 자태를 드러낸 '수중 금강산'이라 명명해도 좋을성 싶다. 출도화돔떼가 줄지어 봉우리를 거슬러 올라가고 봉우리에는 감태와 대황, 미역, 우뚝가사리 등이 자란다. 부드러운 붉은꽃 산호가 꽃밭을 이루는데 수십 40m에서는 돌산호도 보인다. 물고기들은 이곳에 알을 낳는다. 양식명게가 아닌 자연산 명게도 곳곳에서 자태를 드러낸다. 성게, 소라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숨 죽이도록 아름다운 절경.


울진군에서는 아예 '동해의 심장'이라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3개의 거대한 수중 봉우리를 거느리며 동해의 파도 속에 숨죽이고 있다. 남북으로 긴 형상으로 서쪽은 급경사, 동측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다. 남북 54Km, 동서 21Km이며, 면적은 '여의도 10배크기'다.

제주도 남방의 전설의 섬 이어도처럼 동해 어민들

간에 구전되어왔다. 선대부터 왕돌초에서 대구나 이면 수어를 잡아온 오정환(48세) 삼창호 선주는, '본디 후포항 위쪽의 거일리 어민이 자망으로 왕돌초를 개척해서 처음으로 나갔다'고 증언한다. '왕돌'이란 사람이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본격적으로는 1953년 경 바다로 들어간 머구리에 의해 전모가 드러난 이래로 1960년경부터 출어가 시작되었다. 동력선으로는 1시간 30여분이면 닿지만, 무동력선배로는 2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었기에 뒤늦게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좁은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온분포가 복잡하다. 북서는 북한한류, 남동은 동한난류 영향권이다. 좁은 해역에 이처럼 수온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에 한류, 난류어종이 모두 존재한다. 실제로 아열대성어종부터 한대성어종까지 생물생산력이 높다.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출현어종은 총 40여종에 달한다. 어류, 연체동물류, 두족류, 갑각류, 극피동물 등을 모두 포괄한다. 대표 어종은 개불락, 불불락, 임연수어, 활늘래기, 셋돔, 부시리, 인상어, 자리돔 등이다. 미역치, 자리

돔, 인상어, 망상어, 놀래기류 및 쥐치 등은 연중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열대성인 출도화돔, 파랑돔, 거북복은 고수온기에만 확인됨은 수온에 따른 흥망성쇠를 암시한다.

울진군이 바다목장화 지역으로 선정되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바다관광화도 촉진될 전망이다. 왕돌초는 수산과학관측지단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어도해상과학기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동해를 연구관찰하므로써 바다정보를 집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하리라.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세운 부표만이 외롭게 떠있어 장소 표시와 등대 역할만 해주는 실정이다. 조만간 왕돌초는 세인들의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울진 후포항